

◇ 뉴이 20周忌 紀念論文 ◇

뉴이의 經驗과 知性과 自由의 哲學

金俊燮

<서울문리대 교수>

뉴이 (John Dewey 1859~1952)가 세상을 떠난지 20년이 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볼 때에 그의 프래그머티즘인 機具的實驗主義 (Instrumental experimentalism)의 사상은 미국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고 지도하고 있을뿐 아니라 陰으로 陽으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도하는 哲學이 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물론 뉴이 자신이 생각했듯이 철학은 역사성과 사회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뉴이의 철학 그대로가 현대에 작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뉴이의 철학은 이미 역사적으로 과거의 철학이 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과거 20년 동안에만도 프래그머티즘 자체가 論理的 實證主義와 제휴하면서 많이 발전되었거나와 科學·言語·人間등의 문제에 관한 여러 철학의 많은 발전을 보고 있다.

그러나 뉴이의 철학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경험과 지성과 자유의 개념의 참뜻을 토대로 생각해 본다면 사회와 역사의 발전에 따르는 철학의 발전일 뿐이고 뉴이의 사상의 태두리를 전혀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여기에서도 뉴이 생존 당시에도 그랬던 형이상학이나 존재론의 경우는 예외라고 할 수 있다¹⁾. 이런 사상을 제외한다면 뉴이가 미국의 사상을 유럽의 사상의 계속이요 발전으로 보았듯이 오늘의 사상은 뉴이의 사상의 계속이요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경험이 더 풍부해지고 지성이 더욱

1) John Dewey; *Philosophy and Civilization*, Minton, Balch and Company, 1931, p. 32

발전되고, 자유가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면 오늘의 사상은 뉴이가 놓은 초석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필자는 뉴이의 삶의 철학의 핵심이 되는 세가지 기본개념을 해명하고 그 관련성을 분석 고찰하는데서 그의 철학이 오늘에 주는 의미와 한국사람들의 삶에 教訓이 될 수 있을 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삶과 경험

뉴이에 있어서 경험이라는 말은 전통적인 철학에서 생각하던 경험의 생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통적인 철학에서는 감각(Sense)과 사고(Thought), 경험(Experience)과 이성(Reason)을 엄격히 구별하는 입장에서 경험을 감각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1) 영국의 경험론자들도 경험을五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눈으로는 빛깔과 모양, 귀로는 소리, 코로는 냄새, 혀로는 맛, 피부로는 촉감이라는 경험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았다. (2) 경험에서 이루어지는 관념은 똑똑 떨어진 것으로 보았다. 이것을 原子的 經驗論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뉴이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경험이 아니라 경험에 소재를 제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경험은 感官과 대상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有機體와 環境의 관계에서 성립된다. 有機體가 環境과 相互關係를 가지는 行動에서 성립된다. 主體가 有機體이기 때문에 눈으로 본다고 해도 눈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全身의 活動으로 보는 것이며, 귀로 듣는다고 해도 全身의 活動으로 듣는 것이다. 눈이 有機體에서 떨어져서 단독으로 무엇을 볼 수는 없고, 귀가 따로 떨어졌을 때에 소리를 들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이른바 감각적 경험이라는 것도 全有機體의 전동원에서 이루어진다. 感官을 떠나서 경험을 할 수는 없으나 그것이 感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환경속에서의 有機體의 行動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行動이란 무엇인가? 行動이란 主體와 環境과의 相互作用이다. 主體는 언제나 環境속에 있기 때문에 相互作用을 가진다. 主體가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충동과 욕구를 실현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에

적응하거나 환경을 지배해야 한다. 또한 環境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그 속에서 사는 인간으로 하여금 行動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主體가 욕망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行動을 할 때도 있고, 환경에 의해서 彼動의로 行動할 때도 있으나 行動 그 자체는 언제나 主體와 環境과의 相互作用으로 나타난다.

삶이란 主體의 行動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다. 經驗이란 感官作用에서 일어나는 現象이 아니라 삶의 狀況으로서 行動을 通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現象이다. 경험을 感官作用으로 보는 것은 觀念論으로 英國의 經驗論은 經驗的 觀念論이었다. 그러기 때문에 경험을 넓고 깊이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었다. 이에 대해서 듀이는 경험을 行動의 立場에서 보았기 때문에 感官的인 觀念的인 경험이 아니라 구체적인 狀況에 활용되는 경험을 파악하여 삶을 開拓하는 機具로 삼았다.

그렇게해서 듀이는 넓은 경험론이 생각할 수 없었던 〈科學과 道德生活의 指針〉²⁾으로서의 경험관을 수립시켰다. 科學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自然에 관한 知識을 의미하며 道德은 自然을 基礎로 해서 成立되는 社會의 規範體系를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이 두 生活의 指針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경험의 지도없이는 發展되어 갈 수 없다는 것을 意味한다. 이렇게 볼 때에 듀이에게 있어 우리의 삶의 발전은 경험의 계속과 발전에 依存되는 것이 된다. 경험은 연결되고 축적되고 계속되는 발전의 體系로 있게 된다. 그러므로 새로운 경험은 이미 있는 경험에 연결되고 축적되므로써 그 이전의 경험을 풍부하고 새롭게 하여 삶을 성장시키고 발전시킨다. 人間의 成長은 경험이 풍부하게 되는 過程이라고 볼 수 있다. 오래 살수록 많은 경험을 가지게 된다. 個人이나 社會나 國家나 歷史가 오래 될 수록 豐富한 경험을 蕪積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시 말하면 個人的經驗이나 社會的經驗이나 國家的經驗이나 行動의 主體는 다르다고 할지라도 經驗의 계속성 즉 歷史性의 長短에 따라 경험의 量的豐富性에 差異가 있는 것은 事實이다. 經驗이 다르므로 어린이의 行動과 어른의 行動사이에는同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差異가 있게 된다. 그러나 경험이 많다는 것과 경험을 발

2) John Dewey; Reconstruction in Philosophy, the Beacon press, 1948, p. 78

전시키는 것과는 문제가 다르다. 우리는 매일 매일 行動하며 삶으로 오래 살 수록 경험이 점점 축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험이 매일 매일 발전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는 같은 경험을 반복하는데서 隨性에 빠지기 쉬우며 習慣化되어 같은 行動을 쉽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經驗의 發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行動이란 원래 自己의 欲求에서 일어난 것이거나 社會에서 일어난 것이거나를 막론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探求하는過程이다. 探求過程에 있어 우리는 過去의 經驗을 利用하게 된다. 따라서 경험이 풍부할 수록 문제해결의 도움이 된다. 그러나 경험은 기억에 保存되는 것이기 때문에 忘却도 되거나와 또한 잡다한 경험은 오히려 문제해결에 지장을 가져오기도 한다. 경험이 새로운 힘으로써 문제해결의 機具가 되기 위해서는 재구성(Reconstruction)되어야 한다. 再構成의 過程을 떠나서 경험을 발전될 수 없다. 경험이 아무리 많을 지라도 재구성의 과정이 없다면 그 경험은 발전될 수 없다. 경험이 高度로 발전될 수록 어려운 문제 探求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의 발전을 必要로 하게 된다. 그런데 個人에게 있어서나 國家에 있어서나 경험의 발전은 경험의 再構成에서 오는 것이면서 그것은 知性(Intelligence)에 依해서 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知性의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2. 경 الخبر과 지성

듀이에게 있어 知性은 경험 밖에 있거나 경험과 對立되거나 超越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 있다. 경험 속에서 자라며 경험을 연결시키고 경험을 재조직하는 능력이다. 경험을 연결시키고 재조직하는데서 경험을 體系化시키며 反省하는 능력이다. 경험을 다시 살리고 使用하기 위해서는 雜多하고 無秩序한 경험을 再構成해야 한다. 경험 속에서 경험을 反省해서 再構成하는 能力を 듀이는 知性이라고 불렀다.

知性은 경험 속에 포함되어 경험을 일우는데 核心이 되고 있다. 知性은 경험에 이미 관여하고 있으나 그 경험을 다시 조직하고 재구성하는데서 계속되는 삶의 문제 해결의 추진력이된다. 삶은 탐구의 연속이오 그것은 行動을 통

한 경험의 연속이다. 우리는 새로운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知性이 中心이 되어 지난 경험을 토대로 假設(Hypothesis)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 行動하는데서 문제를 풀어가며 새로운 경험을 쌓아간다. 過去의 경험은 과거의 경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現在의 경험에 指針이 된다. 경험을 지난 것으로 그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살려가는데 주동소임을 하는 것이 知性이다

知性은 혼돈되고, 애매하고 충돌되는 不安定한 狀態로부터 安定된 狀態로 이르게하는 문제해결에 이르는 全過程에서 中心의 소임을 한다. 知性이 없다면 경험은 맹목적인 것이 된다. 따라서 知性이 없는 경험은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知性은 「行動의 프로그램」³⁾을 제시하므로써 맹목적인 경험에서 벗어나게 하며 또한 未來의 行動에 方向을 가리켜 준다. 이리하여 知性은 르네상스의 機具的實驗論(Instrumental Experimentalism)에 있어서核心이 되는 基本概念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제 知性의 性格을 좀 더 깊이 考察해 보고자한다.

(1) 抽象作用

듀이에게 있어 知性이라는 것은 傳統的인 哲學이 理性이라고 부르던 것을 代身하는 말이다. 知性은 經驗과 分離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經驗속에 있는 것으로 實驗的知性(Experimental intelligence)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지성은 경험과 對立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중심작용을 한다. 그 作用의 하나는 抽象化作用은 경험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라 經驗속에서 된다. 따라서 數學과 論理學은 경험을 떠나서 成立되는 것이 아니라 知性이 경험을 抽象화시키는데서 成立되는 것으로 본다. 數學과 論理學은 知性的產業(Intellectual industry)의 高度로 特殊化 分野⁴⁾로 생각한다. 知性이 경험을 抽象화하는데서 우리는 경험을 體系化시키는 모든 概念과 判斷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토대로 推理가 可能하게 한다.

(2) 推理作用

知性은 경험을 抽象화시켜 概念과 判斷을 얻는 作用을 할 뿐 아니라 그것

3) Ibid. p. 96

4) John Dewey; The Quest for Certainty, George Allen and Unwin, 1930.
p. 154

을 토대로 推理를 하는데 그 特性이 있다. 경험을 材料로 하는 모든 科學은 基本概念과 原理로부터 推理를 통해 成立된 體系이므로 知性의 推理作用이 없다면 문제의 解決이나 科學의 成立은 不可能하다.

경험이 경험으로 끝나지 않고 未來의 경험을豫測하는 구실을 하는 것은 推理에 依한다. 또한 문제해결의 前提가 되는 假設의 定立도 推理作用이 없이는 成立될 수 없다. 그러므로 知性의 推理作用은 경험을 成立시키고 指導하고 利用하는데 中樞的 소임을 한다. 뷰이는 모든 論理의 표어로 J.S. Mill의 말을 引用해서 〈推理를 한다는 것이 삶의 큰 方法이라는〉⁵⁾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의 경험에 推理作用이 없다면 다른 生物의 삶보다 나을 수 없었을 것이다.

(3) 創意作用

知性은 경험에 있어 문제를 抽象하고 推理하는데서 문제를 푸는데 큰 소임을 할뿐 아니라 計劃을 세우는데서 새로운 경험의 創意作用에 큰 소임을 한다. 새로운 設計를 세워서 實踐에 옮기도록 한다든가 研究에 있어 創意的假定을 세우는 것은 모두 知性의 創意力(Creative power)에 依하는 것으로 본다. 뷰이는 〈철학은 비견이오, 想像이오, 反省이라〉⁶⁾는 말을 했다. 삶에 있어 비견을 가지고 想像力を 동원해서 未來를 言する 것은 知性의 創意作用에 依하는 것이다.

知性은 過去의 경험을 되살리고 現在의 경험을 遂行하게 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경험을豫見하고 거기에 관한 對策을 講究하며 새로운 경험 및 實驗을 創造해 가는데 指導力이 되는데 또한 그 特性이 있다. 知性의 創意作用이야말로 경험의 方向을 定하고 삶의 目的을 세우는 精神作用이며 이로 因해서 個人과 社會는 創造되고 發展된다.

3. 知性과 自由

뷰이에게 있어 自由는 비견과 反省의 힘인 知性이 發展됨에 따라 發展되

5) John Dewey; Essays in Experimental Logic, Dover, p. 36

6) John Dewey; Creative Intelligence, Henry Holt and Co., 1917, p. 65

는 것으로 보고 있다. 經驗은 知性을 통해서 發展되고 經驗의 發展은 우리
의 活動을 자유롭게 한다. 우리의 活動은 個人과 社會의 相互作用에서 이루
어지는 것이므로 知性을 통한 個人과 社會의 反省과 비견이 없이는 자유를
伸長시킬 수 없다. 그리고 자유가 없는 곳에 個性의發揮라든가 民主主義社
會는 實現해 나갈 수 없다.

듀이에게 있어 <자유의 可能性은 바로 우리의 生存에 깊이 根據한다>⁷⁾고 본
다. 그러므로 자유의 可能性은 다른 모든 可能性과 함께 實現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자유는 個人이 客觀的 諸條件과 相互作用하는데서 實現된다. 個
인의 자유문제에 있어서 政治的 經濟的 自由는 個人的自由문제에 뒤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行動의 客觀的條件으로서 同時에 要求된다고 본다. 아무리 知
的自由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相互作用에서 어루이지는 行動에 있어 客觀
的條件이 되는 社會의自由가 없다면 자유의 實現과 發展은 期待할 수 없다.
그리므로 듀이는 個인의 自由를 위해서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自由의 必要
性을 強調하여 社會制度의 改革을 위해서 많은 活動을 했다. 듀이는 知的自
由(Intellectual freedom)를 강조했다. 知的인 經驗이 아닐 때에 참다운 경
험이라고 할 수 없듯이 자유도 知的이 아닐 때에 참다운 自由라고 할 수 없다.
知的인 자유란 利己主義的인 자유가 아니라 各個人의 協力を 통해서 各個人
의 자유가 實現되는 同時に 自己의 자유가 實現되는 自由이다. 自己의 自由
가 實現되어 同時に 他人의 自由에 支障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他人의 自
由를 도와주게 되는 자유야말로 참다운 知的인 自由인 것이다. 듀이는 個人
을 社會와 分離시켜 보지 않고 社會의 一員으로 보는데서 個인의 자유와 社
會의 자유가 不可分離의 相互關係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봄으로써 協力を力
說하는 知的인 자유를 주장하는데 그 特色이 있다고 하겠다.

듀이를 全體的으로 부를 때에 科學의 哲學者요 자유의 哲學者라고 한다.
듀이는 科學과 자유를 어느 哲學者보다도 強調했다. 科學은 經驗의 精髓이
다. 經驗을 知性化하여 그것에서 科學을 가지는데서 人類는 文明과 文化를 創
造 發展시켜 왔고 이것에 依해서 우리는 자유를伸長시켜 왔다.

7) John Dewey; Philosophy and Civilization, p. 297

科學이 없는 곳에 우리의 自由는 實現될 수 없다. 科學의 發展은 無知와迷信에서 오는 自然的 社會의 구속으로부터 우리를 解放시켜 주었다. 個人的心理狀態를 비롯해서 社會와 自然에 관한 우리의 知識은 우리의 根本欲求인 自由를 實現시키는데 큰 機具가 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科學의 發展에 比例해서 우리의 자유는 發展되고 擴張되어 갈 것이다. 自然科學·社會科學·人文科學의 發展은 自然을 利用하고 社會를 改革해 나가는데 큰 소임을 할 것이며 이것은 결국 人類의 자유를 보다 광범하고 깊게 伸長시키는 데 寄與하게 될 것이다.

듀이가 자유의 哲學者로 自由를 강조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이 바로 人間의 構造에 同伴되는 潛勢力이라고 보며⁸⁾ 그것을 實現해 나가는 것이 곧 삶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이다. 各個人이 世上에 태어나서 자기의 個性과 慾望을 充分히 實現시켜 나가는 곳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서各自는 幸福과 繁榮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知性을 통하여 자기와 社會에 관한 反省과 비견을 가지고 實踐斷行하는데 계을려서는 아니된다. 知性의 計劃을 實踐하고 斷行하는데서 자기를 不斷히 改造해 나가고 各個人의 協力으로써 社會를 계속 改革해 나가는데서 우리는 名實 부합되는 자유를 實現시켜 나가게 될 것이다.

結論

우리는 위에서 듀이의 哲學이 經驗 및 實驗을 삶의 底邊으로 하며 그것이 知性을 中心으로 하는데서 發展됨을 보았다. 또한 經驗을 抽象·推理·創意하는데서 知識을 얻어 그것을 통해서 個人과 社會를 改革發展시켜 나감으로써 삶의 基本欲求인 자유를 擴張시켜 나가는 것을 살폈다.

이러한 듀이의 經驗과 知性과 自由의 哲學思想은 科學·論理·倫理·教育·政治·法律·經濟·藝術·宗教·歷史 등 各分野에 관한 그의 방대한 著書와 論文 속에 充分히 나타나 있다. 實로 듀이는 現代의 미국의 건설과 發展을 思想의으로 뒷받침한 最大의 哲學者이었으며 앞으로 계속 큰 影響을 줄 것이

8) Ibid. p. 298

다. 그의 思想은 自然主義·實驗主義·論理的實證論 및 論理的經驗論等의 潮流와 제휴되어 현대의 美國思想을 그대로支配하고 있다고 하겠다.

듀이는 美國에서뿐 아니라 20世紀에 있어 세계적인 最大의 哲學者中의 한 사람이었다. 그의 機具的實驗主義思想은 現代의 歐美各國의 文明과 文化的 발전에 直接 또는 間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그의 經驗에 관한 깊은理解와 知性의 強調 그리고 自由를 力說하는思想은 世界의 많은 知性人們의贊成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번 기회에 지성인들이 듀이의 思想을 좀 더 체계적으로 깊이 研究해서 올바르게 理解하여 그것이 大衆化될 수 있고 社會制度와 운영에 잘 利用될 수만 있다면 美國과 같이 규모는 크지 못하다 해도 같은 程度의 近代化 및 現代化가 實現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사상의 밀받침 없이 各方面의 近代化는 不可能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듀이의 철학은 本格的으로 다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